

## 유성진 회장 제 44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참석



• 제 44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유성진 회장.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협회 회원 양철규 쌍용건설 소장이 대통령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최용호 삼부토건 안전팀장이 대통령 표창, 강부길 진흥기업 안전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제44회를 맞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의 올해 주제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나라'. 지난해 국내 산업현장의 재해발생은 평균 근로자 하루 6명 사망, 270명 부상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의 안전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산업재해자 : 98,645명, 사망자 : 2,200명)

산업재해로 인한 지난해 경제적 손실액은 17조 6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봉 2천만원에 해당하는 신규근로자를 88만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100배가 넘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와 같은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우리사회 안전을 점진하는 범국민적 행사로 7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제 44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 행사의 특징은 국민 참여형으로 전환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 안전보건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 안전보건 학술발표 및 정보교류의 장인 「안전보건 세미나」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 국내외 최신 안전보건 기기와 제품이 선보이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이외에도 이번 행사의 특징인 국민 참여형 행사로는 명사의 명강의 특강, 일반 국민이 참여해 만든 UCC 작품이 전시되는 「안전보건 UCC Show」, 초등학생들이 펼치는 「안전동요제」를 비롯해

「안전문화 포스터 그리기 대회」, 「안전문화 백일장」, 「퀴즈대회」가 진행 되었다.

한편, 7월 4일(월), 행사 시작을 알리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노·사·민·정 및 안전보건 관계자가 참여해 안전보건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산업재해예방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이 실시되었는데,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회원인 양철규 쌍용건설 소장이 대통령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최용호 삼부토건 안전팀장이 대통령 표창, 강부길 진흥기업 안전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부에서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노·사와 일반국민에게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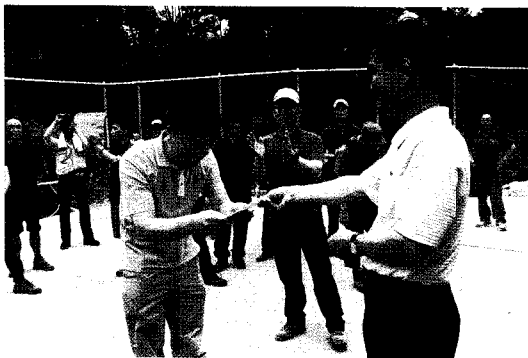
## 협회 창립 22주년 기념 등반



• 협회임직원 전원이 청계산 정상에 오른 창립 22주년 기념등반.

협회는 지난 6월 17일 청계산에서 창립 22주년 기념 등반행사를 가졌다.

유성진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기념등반은 특히, 단 한명의 낙오자 없이 해발 582m를 전원이 정상까지 올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한편, 등반을 마치고 실시된 친선 족구대회에서는 기획관리부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토목사업부가 준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 친선 족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기획관리부를 대표해 우승 상금을 받고 있는 김종철 과장.

## 제94·95회 건설안전기술사시험 합격자 협회 방문



• 제94회 합격자 일행



• 제95회 합격자 일행

제94회 및 95회 건설안전기술사시험 합격자 일행이 지난 8월 10일과 10월 21일 협회를 방문해 유성진 회장을 비롯해 한경보 명예회장등과 협회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설명을 들었으며 합격자 일행은 향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되기를 희망하며 협회 발전에 앞장서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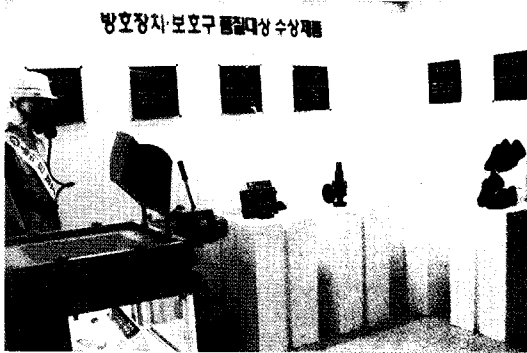
### ◆ 제94회 합격자중 협회방문자 명단

권기수(태영건설), 김정훈(두산건설), 류연창(LH공사), 문광찬(하나은행), 서민성(롯데건설), 손영운(중앙건설), 이동운(두산건설), 이은경(국방부), 정광록(쌍용건설), 천노수(남광토건), 오상원(롯데건설) 이상 11명

### ◆ 제95회 합격자중 협회방문자 명단

김영형(한국산업안전공단), 박옥남(한국CM ENC), 윤원기(삼안기술단), 이도영(대림산업), 장영수(LH공사), 최종국(한라건설), 이민수(사업), 안종갑(도로공사), 전영근(토지공사) 이상 9명

## 산재예방 방호장치 · 보호구 전시관 개관



• 방호장치 · 보호구 전시관 전경

산업현장의 우수 방호장치와 보호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강성규)은 일반인과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방호장치 · 보호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산재예방 방호장치 · 보호구 전시관'을 열었다.

전시관은 인천 부평구 소재 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내에 조성되었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호장치 · 보호구 중 안전성 등이 검증된 우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전시 제품은 공단이 실시하는 '방호장치 · 보호구 품질대상'에서 수상한 제품들로, 올해 수상품인 과부하 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용접용 보안면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유해광선으로부터 작업자의 눈을 보호하는 '용접용 보안면'과 과부하시 경보음이 울리는 '과부하 방지장치' 등은 관람자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방호장치 · 보호구 전시관은 공단을 방문하는 내방객,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회장에 신진규(申晋珪) 전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선출



• 지난 26일 열린 대한산업안전협회 2011년도 제 1차 임시총회에서 제24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신진규 신임 회장이 향후 협회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회장에 신진규(申晋珪) 전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선출되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8월 26일 충북 충주시 주덕읍 협회 산업안전연수원에서 열린 2011년도 제 1차 임시총회에서 신진규 전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제 24대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에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진규 신임 회장은 자율성이 중시되고 시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산업안전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민간 종합안전컨설팅 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신진규 신임 회장은 "30여년 동안 노동운동가로서 근로자들의 애환을 보듬고, 그들의 경제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헌신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앞으로도 협회의 역량을 더욱 끌어올리고 발전시켜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진규 신임 회장은 "청렴과 도덕성에 기반한 경영으로 모든 근로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협회를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메카이자 사회적 소임을 다하는 재해예방기관으로 확고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진규 신임 회장은 2011년 8월 27일자로 취임했다.